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비전(Vision)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

교육목표(Goals)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평생자기개발 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국내 최초 여성 전문 병원, 보구녀관 및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겨울 전경

02 대학소식

- 의과대학, 2020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6년) 획득
- '이화성탄의 집' 4호 점등식 개최
- 컴퓨터의학 유전상담학 협동과정 신설
- 의과대학,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03 학생소식

- 이러닝 컨소시엄 공모전 시상식
- 동아리소식 '아이리스'

05 기획기사

- 박ես터 120주년 기념 전시 개최
- 미국에서 연구하는 임상외사, 김이리 교수

07 특집기사

- 의료와 선교
- 의료와 선교 교과목 소개 및 역대 강사진

09 동문소식

- 최영아 동문 인터뷰

10 교수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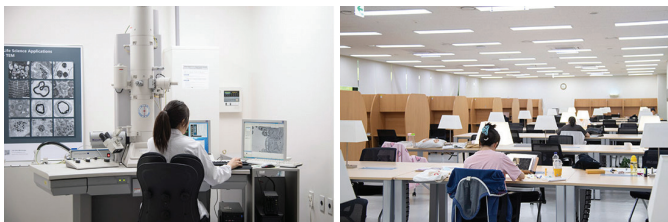
- 정년 퇴임 교수
- 신입 교수
- 교원 보직발령
- 교수수상 및 업적

11 의과대학 기금안내

대학소식

의과대학, 2020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6년) 획득

본교 의과대학(학장 한재진)이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시행하는 '2020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최상등급인 '6년 인증'을 획득했다. 의과대학은 2010년과 2014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이어 3회 연속 최상등급을 받으며,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근거하여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진행하고, 방문평가단의 최종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판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판정되었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자체평가연구위원회(위원장 이지수, 간사 황지영)는 2018년 총 26명의 의과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18년부터 꾸준히 평가 문항 분석, 자체평가 활동과 개선활동 점검, 다수의 워크숍과 보고회, 보고서 교차 검토 등을 진행하여 최종 의과대학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하였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0년 평가는 2021년 2월 28일 인증기간 만료를 앞둔 1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교 의과대학은 고려대학교 · 인제대학교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6년 인증'을, 가톨릭관동대학교 · 경희대학교 · 동국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4년 인증'을 각각 획득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부터 전면 도입한 새 평가인증기준 ASK2019 (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해 2020년도 평가인증을 시행했으며, 본교 의과대학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평가영역 92개 기본 기준에서 87개 항목을 충족하며 최고 평가를 받아 '6년 인증'을 획득했다. 2020년도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1887년 개원한 한국 최초 여성전문병원 '보구녀관'에서 시작된 이화의 의학교육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터 등을 배출하며 한국 여성 의학의 선구자로서 자리매김해왔다.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이어받아 본교 의과대학은 1945년 개교 이래 4천200명이 넘는 여의사를 배출하며 한국 의료계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며, 2019학년도 1학기 마곡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21세기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우수한 여성 의학도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의료 바이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층 도약해나갈 계획이다.



의과대학, '이화성탄의 집' 4호 점등식 개최



12월 2일(수) 오후 5시 30분 의과대학은 마곡캠퍼스 지하1층 중정에서 '이화성탄의 집' 4호 점등식을 개최

했다. '이화성탄의 집'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화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빛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특히 올해는 의과대학과 조형예술대학 협업으로 '이화성탄의 집' 4호를 신규 제작하였으며 이로써 '이화성탄의 집'은 총 4개로 늘어나 신촌캠퍼스와 의대 마곡캠퍼스의 밤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화성탄의 집' 4호 점등식에는 장윤재 교목실장, 심현 의과대학 동창회장, 유경하 의료원장, 한재진 의과대학장, 강애란 조형예술대 교수, 의대 학생기자단 학생 2인 등이 참석하였다.

의과대학, '국내 최초' 컴퓨터의학 협동과정 및 유전상담학 협동과정 신설

본교 의과대학이 2020학년도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및 연구 혁신을 위해 융복합교육을 선도할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과정은 컴퓨터의학, 유전상담학 총 2개 협동과정이다.

컴퓨터의학 협동과정

컴퓨터의학 협동과정은 본교 의과대학이 국내 최초로 개설하는 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학 혁신을 선도하는 총체적 학문 개념으로 수학, 공학 및 전산 과학을 응용하여 질병의 병리기전을 밝히고 치료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곧 복잡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 통합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질병의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향후 차세대 의료를 선점할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학문이다.

유전상담학 협동과정

유전상담학 협동과정은 의학유전체와 질환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의학과 법학의 융복합 사고 확장을 통하여 전문화된 유전상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본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없는 유전상담전문가를 배출하여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인 유전상담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에 더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의과대학 및 이대서울병원,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본교 의과대학과 이대서울병원이 2020년 제38회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과대학과 이대서울병원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연면적 26만2천722.67㎡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상 10층, 지하 6층의 종합병원과 지상 12층, 지하 5층의 의과대학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연채광을 높이고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도록 설계한 중정 형태로 병동을 구성했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비용을 연간 32% 절감하고 절수형 위생·주방기구와 지역 재생수 활용으로 상수도 사용량을 절반 가량 줄인 친환경 건축물이다. 서울시 건축상 심사평에 따르면 본 건물은 중앙의 호스피탈 스트리트를 중심 통로(corridor)로 하여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을 상하로 자연스레 연결시키고 그 내부에 천창을 두어 자연광을 내리도록 해 시각적 초점이 되는 요소들을 집중 배치했다. 스트리트 내부의 섬세한 디자인은 물론 적절한 분절과 보이드(void)로 시각 형태의 볼륨을 소거하여 완성도를 높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축물 자체의 볼륨감을 덜어주기 위해 메탈 글라스 또는 스톤 메탈의 수직 루버(차광판)를 다양한 각도로 사용하여 시각적 접촉의 가벼움을 느끼도록 만들어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이다. 작년 5월 개원한 1,014병상 규모의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최초 3인실 중심의 스마트 최첨단 병원으로, 4개의 병동으로 이뤄진 타워와 중정으로 구성되어 마곡지구의 입지적 특성에 의한 항공고도 높이제한의 제약을 극복했으며, 중정의 일부 구간을 건너내는 조형계획으로 내부와 외부 공간이 연속되는 개방감을 확보하면서도 공간적 차별성을 가졌다. 병원 건물의 외형은 이화의 강인한 정신을, 내부공간에는 이화만의 우아한 정서를 담았으며 의료기능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담은 치유환경을 제공하도록 구성됐다. 의과대학은 병원의 조형개념과 유사하게 하나의 육면체의 내부를 걷어내어 내부와 외부에 중정과 보이드를 계획하고 이를 동일한 입면으로 규정해 교육공간과 실험공간, 기숙사 및 의사연구실 등의 다양한 기능과 공간을 통일감 있게 구성했다. 본교는 앞으로도 도시 미관을 한층 아름답게 증진시키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대학건물 설계를 통해 건축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학생소식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MEDIEDU) 공모전 시상식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MEDIEDU)에서 주관하는 '2020 학습자료 공모전'이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은 국내의 여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 의학 교육을 위해 e-러닝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교육의 장이다. 해당 컨소시엄에서 개최되는 공모전은 의과대학생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적극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 '2020 학습자료 공모전' 시상식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한 대학별로 개별 시상식을 거행했으며, 본교의 시상식은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계림홀에서 12월 11일에 진행되었다. 의과대학장 한재진 교수, 의과대부학장 정성애 교수, 김혜순 교수가 시상자로 참석하였다. 본 공모전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대상을 포함한 4개의 수상작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상 '소아 예방접종 CPX 길잡이(김하나, 송지현, 장민지, 지도교수 이지현)', 우수상 '5분 완성 꿀팁 OSCE: 기관 내 삽관(김소연, 윤소연, 복지연, 지도교수 이희승)', '뇌신경 5분컷(조해은, 장한나, 지도교수 윤지영)', '흉통 CPX 3분 버락치기(김주희, 박수현, 우진강, 이영주, 장민영, 지도교수 신상훈)'에 대한 주제로 수상했다. 본 시상식에서는 수상작에 대한 상장 전달이 있었으며, 수상 작품들은 컨소시엄 홈페이지(www.mededu.or.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2020 학습자료 공모전' 우수상 수상팀 인터뷰



▲ 왼쪽부터 의학과 3학년 김주희, 이영주, 우진강, 장민영, 박수현 학생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 김주희, 박수현, 우진강, 이영주, 장민영 학생(지도교수 신상훈)이,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학생소식



'2020 학습자료 공모전'에서 '홍통 CPX 3분 벼락치기'라는 학습 콘텐츠를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의 주제는 '홍통 CPX'로, 홍통을 주소(chief complaint)로 내원한 환자들을 감별진단 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재미 있게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의 주인공인 다섯 명의 학생들을 만나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Q 우수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영상에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는 것이 매우 뜻깊고, 지도교수님이신 신상훈 교수님과 여러 선배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A 아무래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주제를 CPX로 잡았는데 본격적인 CPX조차 경험해보지 못하여서 처음 대본을 쓸 때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도 여러 선배님들과 교수님께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CPX를 직접 해보고 내용적인 부분을 보강하여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 영상을 다루는 데에도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씩 배워가며 편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하고 보니 대본 작성부터 편집까지 쉬운 것이 없었는데,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의학과 3학년 박수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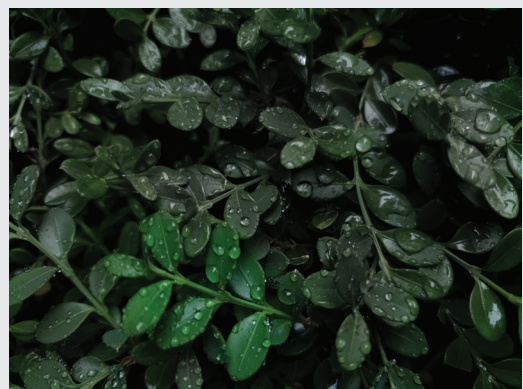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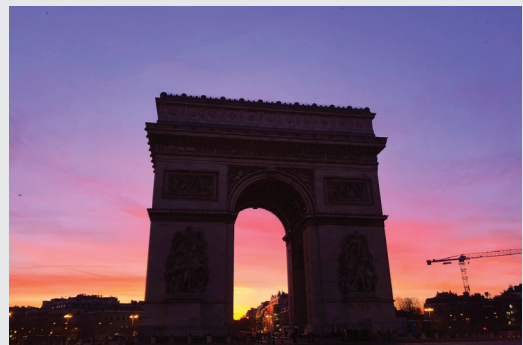
동아리소식

아이리스 '온라인 사진 전시', 비대면 시기 긍정 메시지 전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사진 동아리 '아이리스'가 '나의 소확행'을 주제로 2020년 11월 23일 온라인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을 주최한 아이리스 예과 가장 박서영(예과 2학년) 학생은 올해에는 모여서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진 동아리의 장점을 살려서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제로 선정된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코로나 시기의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비 오는 날 집에서 영화 한 편', '산책하다 본 풍경', '좋아하는 디저트 테이크아웃' 등 다양한 주제의 사진이 출품되었다. 접수 마감 후 온라인 메신저로 사진 전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에는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을 가리기 위한 동아리원들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1위는 임나는 학생(예과 2학년)의 '귀여운 소품 숨 방문하기' 작품이 선정되었다. 현재 동아리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아이리스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다. 박서영 학생은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 서로의 사진을 보며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행복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본 온라인 전시 활동이 조원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의학과 1학년 임나는 기자〉

사진 콘테스트 입상작



기획기사 | 박에스더 120주년, <이화의 선구자, 의사 박에스더> 전시 개최

2020년,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 선생의 120주년을 맞이하여 이화 역사관에서 〈이화의 선구자, 의사 박에스터〉 전시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개최된다. 당시 열악했던 조선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박에스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참된 의술을 실천하고 한국 여성의학의 문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에스터의 이화학당 시절 모습, 미국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유학생 시절 사진, 귀국 후 의료활동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또, 이화가 발간한 한국 최초의 생리학 교과서인 『전태공용문답』과 현재 이대서울병원 안에 복원된 보구녀관의 모습 등을 통해 이화 의학의 역사와 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 이화역사관 김송이 담당자를 만나 전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인터뷰하였다.

Q 이화역사관에서 〈이화의 선구자, 의사 박에스더〉 전시를 기획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이번 전시에서는 박예스더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 자료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예스더의 유년, 학창 시절 사진뿐만 아니라, 로제타 셔우드 홀과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는 편지 자료, 당시 발간된 W.F.M.S. 보고서 등을 통해 박예스더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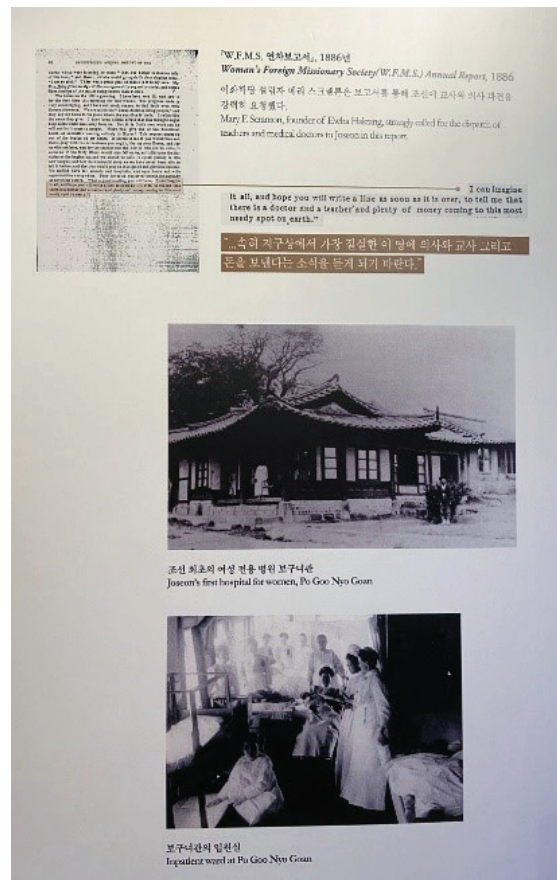
Q 이대서울병원과 의과대학 마곡캠퍼스에는 보구녀관이 복원되어 있는 데요. 보구녀관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A 보구녀관은 의료 혜택에서 소외받았던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전용 병원입니다. 보구녀관은 이화학당의 설립자 스크랜튼 선생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화학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습니다. 이화학당 학생들은 보구녀관에서 일을 도우며 전문 의료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에스터가 그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보구녀관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이대서울병원에 복원된 것은 보구녀관에 이화의료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전시에서 박에스터 선생의 의대생 시절 모습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박에스터 선생의 삶은 이화의학대 학생들에게 많은 귀감과 용기를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박에스터는 이화의 초창기 학생으로서, 이화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한국 최초의 여의사입니다. 이후 박에스터를 시작으로 이화인들이 이화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화인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박에스터의 삶을 확인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신들의 미래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의학과 1학년 권나현 기자〉



기획기사 | 미국에서 연구하는 임상 의사, 김아리 교수



김아리 교수는 미국 소아내분비 학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자로, 2019년 미국소아내분비학회 호르몬 연구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인턴 수료 후 2013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병원 소아혈중 연구실에서 연구원 생활을 보낸 후, 신시내티 어린이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현재 테네시 주립대학의 어린이 병원(Le Bonheur Children's hospital)에서 조교수 재직 중이다. 김아리 교수에게 '해외에서의 의사의 삶'에 관해 인터뷰를 하였다.

Q 2019년에 미국소아내분비학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을 선정하는 호르몬 연구 논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A 사실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팀이 함께 받은 상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멘토인 Andrew Dauber, MD 이 저를 대표 수상자로 지정해 주셨어요. 이 연구는 신시내티 소아 병원 내분비과 외래에서 한 환자를 진료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소아 환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같은 증상을 앓게 되면 소아과에서 성인 내분비과로 전원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는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자의 다양한 증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진단명이 발견되지 않아서 소아 병원으로 계속 진료를 받으러 오고 있었어요. 내분비과와 유전학과와 외래 협진 센터에서 환자의 케이스를 검토하고 상세한 유전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밝혀낼 수 있었고, 연구실에서도 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수술계기로 남아있던 케이스를 한층 발전된 진단기술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경험은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Q USMLE 시험 준비와 미국에서의 병원 수련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 본교에서 학생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덕분에 세 달 정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아종양학과와 기초 연구실에서 실습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임상 의사와 기초연구 분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연구원들이 시너지를 이루며 함께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연구하는 임상 의사 (physician-scientist)'가 되어 진료실과 연구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Q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해외 연구실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경험과 노하우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A 해외 연구실 지원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요. 연구실 웹사이트에 공지된 공식적인 구인광고를 자주 살펴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실의 대내외적인 소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지어 해당 연구실에 자리가 있는지 문의하는 편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니 연락을 취하기 전에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문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절당하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거절당할 때마다 실망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극복하기 위해 수련하고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적응하는 과정 동안 힘들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비자 문제나 거주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는지,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가장 힘든 건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운 순간들이 것 같아요. 통신 기술의 발전 덕분에 화상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가족들과 어디에서나 손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지만, 몇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자와 거주 문제는 개인 상황과 소속된 학교/병원에서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느꼈으나,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연구하는 의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기에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종종 고민하곤 합니다. 아직 연구하는 임상 의사의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고 관련 제도 또한 정립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에 의학과 과학 사이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가장 인간에게 도움이 될 발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 또한 많은 임상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수록 서서히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 없이 늘 즐겁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과 1학년 권나현 기자〉



특집기사 | 의료와 선교



2020년은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가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 120년 되는 해이다. 박에스더는 보구녀관(普救女館)의 의사로 부임한 로제타 셔우드홀의 통역과 의료 조수를 맡으며 의료인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보구녀관(普救女館)은 1887년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국내 최초의 여성 전문 의료기관으로, 당시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하던 여성 환자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화의료원은 오늘날까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미션을 이어가기 위해 쉬 없이 달려왔다. 이번 특집기사에서는 보구녀관(普救女館)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앞장서서 의료선교를 이끌고 있는 두 분 선배님과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유미 선교사님(의학 93졸) 인터뷰



이유미 선교사님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97년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수련했다. 이후 2000년 예멘 의료선교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요르단 의료선교를 이어왔다. 현재는 WEC 국제 선교회 한국본부 부대표를 맡으며 의료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선배님과 나는 의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까 한다.

Q 오랫동안 여러 국가에서 의료선교를 이어오셨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A 제가 있었던 곳은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에 나가기 힘들었던 여성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들이 비교적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클리닉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던 아기를 살렸을 때나 사정상 키울 수 없는 아기들을 돌보게 되었을 때, '이화 학당을 시작했던 선교사님들도 이런 벅찬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면, '혹시 성경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어볼 때일 것입니다.

Q 의료선교 지역의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이나 삶에 대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융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속한 선교 단체인 WEC International은 국제단체이며, team을 구성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전에 팀의 안내에 따라 수도에 있는 언어 학원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시

간을 1년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9/11 사태가 터져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바람에 계획보다 일찍 병원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팀이 25년 이상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그동안 선배들께서 쌓아놓으신 좋은 관계와 신뢰 덕분에 지역사회와 이웃들도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병원은 시골에 위치한 병원이었었는데, 선교병원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병원으로 바뀌면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을 대하는 것이 서툴렀으나, 외래에서 자주 만나고 퇴원한 뒤에도 찾아가면서 점점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 학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주치의이면서 딸과 같은 존재로, 또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의료선교의 과정 속에서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중에 어떤 것에 더 집중하시는지, 그곳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헛갈리는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매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과를 수행하기에 의사로서의 정체성은 고민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안고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의료선교사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를 붙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자 다짐하였고, 가정에 방문하여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의 확신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선교사님의 의료선교 계획과, 의료선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의료선교사로서 병원 팀에 소속되어 사역을 시작했지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의사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가 온다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서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001년부터 18년간 '시골 의사'로 살던 저를 2019년에 한국 본부로 옮기셔서 신입 선교사 영입과 훈련을 맡기셨습니다. 이후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계속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고, COVID Pandemic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선교지로 파견하는 일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때에 저를 땅 끝으로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이 계신다면 'here and now'에 집중해서 각자 학업이나 예배, 그리고 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 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특집기사 | 의료와 선교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장 김혜순 교수님(의학 89졸) 인터뷰



Q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89년, 의과대학 정신과 이근후 교수님을 중심으로 네팔 해외의료봉사가 시작된 이후, 이화의료원에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이화의료선교회가 발족되었고, 그간의 활동을 밑거름 삼아 2017년에는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가 창립되었습니다.

Q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는 보구녀관의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요?

A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녀관은 로제타 홀과 같은 해외 여성 의료선교사들의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지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선교사들의 기독교적 섬김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내외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하고, 의료선교사를 지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는 의과대학 EMC(Ewha Medical Care)의 해외 의료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교지에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이화의료원으로 초대하여 수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의료진의 의료연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였고, 선교기금을 모아서 해외의료선교사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병원과 목동병원 양 병원 체제를 시작하는 단계라 새롭게 계획된 바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Q 이화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를 이끌어 오시면서 의료 봉사를 이어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A 이화의료원에서는 매년 1~2회 EMC를 통해 캄보디아,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등의 선교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이화의료원의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봉사 기간 동안 교수와 학생 간에 친밀한 관계도 형성할 수 있고, 매일 아침 성경 묵상을 통해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의료봉사를 하며 만난 분에게 청색증 선천성 심장병인 TOF를 진단한 일입니다. 그곳에서는 수술할 여건이 되지 않아 한국으로 초청하였고, 결국 그분은 우리 이화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치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Q 의료봉사를 복음과 결합하는 것은 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의료와 선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보구녀관에서 일하시던 의료선교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동시에 복음도 전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취약자였던 여성과 아이들의 육적인 건강을 돌보면서 한순간도 그들의 영혼에 관한 관심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화학당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근대의 지식인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원에서 의사가 진료하면서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화의료원에는 원목실을 따로 두어, 원목님이 입원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와 같이 기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적으로 약해질 때 전능자를 찾게 됩니다. 의료원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가와 외래진료 시작 전 나오는 방송기도, 수술실에서 집도자가 환자를 위해 하는 기도, 환자 대기실에 비치된 성구들 모두 환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의료원의 선교 방침입니다. 로제타를 의료선교센터는 이화의료원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되어 병원에 방문하는 모든 환자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3학년 박수현 기자〉

「의료와 선교」 교과목 소개 및 역대 강사진

2009년 1학기부터 개설되어 본원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선교와 봉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게 하여,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전문 의료 선교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선교의 정의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관을 돌아보아 선교사로서 필요한 신앙의 자질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업에서는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선교 단체 탐방 및 졸업논문과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의료선교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의 크리스천 의료인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2학기까지 의료와 선교에 참여한 강사는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김관창 / 김영주 / 김유희 / 김혜순 / 문영철 / 박혜숙 / 성순희 / 성주명 / 신상진 / 우소연 / 유정현 / 이미애 / 이승신 / 전윤식 / 정구영 / 정우식 / 정성철 / 최규룡 / 최혜영 / 하은희 / 한수정 / 한재진 / 홍기숙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박희규 / 서명삼 / 손운산 / 양명수 / 양현혜 / 장윤재 / 정용석

【외부 강사진】

김문규 선교사 (연세의료원) / 김시찬 선교사 (하노이적십자선익클리닉) / 김우정 선교사 / 김유선 선교사 (캄보디아) / 김정년 선교사 / 박재영 선교사 (네팔) / 박진용 선교사 (연세의료원) / (故)서원석 선교사 / 안신기 (연세의료원) / 이대건 목사 (서울대학병원교회) / 이방원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의 생애와 영향" 저자) / 이유미 선교사 (WEC 국제 선교회) / 이재혁 선교사 (나이지리아 선교) / 이창욱 선교사 (동문) / 전희근 ("선교와 의료" 저자) / 조철현 선교사 (사단법인 아시아협력기구) / 최영아 선교사 (회복나눔 네트워크) / 최원규 선교사 (연세의료원) / 황수경 동문 (선린병원 외과)



동문소식 | 최영아 동문(의학95졸), '제18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선정



어느 화창한 9월, 모두가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토요일 오후에 서대문구 불광천 앞에 있는 트리니티 패밀리 카페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떡볶이 떡은 뭐가 좋을까? 수제비 떡이 맛있던데...” 이곳은 마더 하우스와 사단법인 회복 나눔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카페로, 지난 2018년에는 미혼모와 싱글맘을 위해 직업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바보짜장과 MOU를 체결하여 smile box 2008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을 진행해 노숙인과 청년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도우려고 한다. 이곳의 대표 최영아 선배님은 20년 가까이 노숙인들 곁에서 진료 봉사를 진행하셨고,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비영리 단체인 마더하우스와 회복나눔 네트워크를 설립하셨다. 올해 5월에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까지 선정되신 선배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다.

Q 이번 5월에 ‘제 18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려요.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이 상은 한평생 사회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은 이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2부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을 인정해주시면서 앞으로도 지속하라고 격려해주시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느끼고는 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런 상을 받으니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Q 오랫동안 봉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길을 걷게 되신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A 저는 예과 2학년 여름에 간 자원봉사에서 비를 맞으며 배식 받은 식사를 드시고 있는 노숙인 분들을 만난 게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가 1990년이었으니가 30년 전이네요. 3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어요. 길이나 지하철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도 많았고,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봉사하면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진료를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말이 안 통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났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병에 걸린 거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대화를 해야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30년 가까이 다양하게 훈련받아서 지금은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진료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Q 선배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차셨어요?

A 저는 친구들이 세부 전공을 정해서 수련을 시작하던 시점에 내과 전문의만 따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노숙인과 취약 계층을 치료하는 것이 저의 세부 전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다 보니 조금 불안했죠. 하지만 결국 의사로서 부족함이 없게 잘 훈련받았음을 확인할 때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람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도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의료 인력만 해도 간호사와 다양한 분과의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과의 교류가 저를 더 좋은 의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Q 그럼 언제 가장 힘들셨어요? 환자를 돌보시는 일이 많이 힘들셨을 것 같아요.

A 환자들께서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환자들께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간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시간이 저를 한 뼘 더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음을 느낄 때였어요. 일하면서 여러 단체와 같이 준비한 봉사활동이 많았는데 환자들께서 진료를 제공하는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그냥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원해서 하는 건데 제 앞에서 잔뜩 긴장한 분들을 보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런데 같이 봉사를 진행하는 몇몇 단체에서 그런 점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환자와 도움을 주는 사람 사이에 깊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위계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에 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단체가 하는 행동에 진정성을 못 느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진료 과정을 동등한 인격 간의 만남으로 만들어가자고 하고 싶었지만, 저 또한 환자들에게는 치료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Q 선배님께서 예전 인터뷰에서 노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거주 시설(house)이 아닌 가족(home)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A 예전에 노숙인들은 쪽방이나 고시원처럼 보증금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분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해주어서 수급비에 포함되어있는 주거지원비만 납부하면 지낼 수 있게 된 집이 많아졌어요. 저희는 집이 없으신 분들을 그룹홈에서 지내게 하다가 주택이나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아파트도 저희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은 사람이 사는 집이 되었어요. 사는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생활 습관에 의해 생기는 병이 대부분이어서 집을 중심으로 식사, 목욕, 수면만 잘 관리해도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되거든요. 일상이 바뀌어야 병이 해결되는데, 매일 불안에 긴장을 늦출 수 없으니가 낫지 못하고 심해지는 거죠. 저도 이런 상황을 환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노숙인 지원 정책은 병원이 아니라 집을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집을 중심으로 노숙인의 삶이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고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숙인들에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어서 노숙인이 된 거잖아요.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해요. 일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 과정을 돕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였어요. 이곳에서 식당을 오픈하려는 것도 청년이나 노숙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메뉴를 준비하는 단계인데, 준비를 마치면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일하면서 소득도 얻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맺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이렇게 해도 사람이 금방 변화하는 힘들 거예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동안 변화하신 분들을 보았고, 희망을 품고 천천히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

Q 마지막으로 이화의대 후배들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잘했기에 공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의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부만은 아니예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필요하고 노력을 통해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는 정말 중요해요. 의사가 되면 의료인이나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해요. 지금은 공부에 매몰되어 멀리 보기 힘들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의사가 된 이후에는 공부 외에 다른 훈련, 다른 삶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의학과 1학년 정상현 기자〉

교수소식



정년 퇴임 교수

2020. 8. 31일자



홍영미(소아과학)



김치호(마취통증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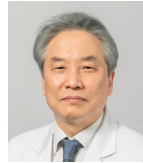


전윤식(치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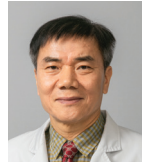


정구영(응급의학)

2021. 2. 28일자



서동만(흉부외과학)



성주명(내과학)



윤여현(정형외과학)

신임 교수(2020년도 임용)

▲박소영(내과학) ▲신태영(비뇨의학) ▲이수진(내과학) ▲조인정(내과학)

교원 보직발령(2021. 2. 1. - 2023. 1. 31.)

▲이혜진(의과대학임상교무부장) ▲양현중(의과대학의학교육부장) ▲박상희(병리학교실주임교수) ▲박은미(약리학교실주임교수) ▲정지향(신경과학교실주임교수) ▲박미혜(산부인과학교실주임교수) ▲유재두(정형외과학교실주임교수) ▲황승균(신경외과학교실주임교수) ▲김한수(이비인후과학교실주임교수) ▲한중인(마취통증의학교실주임교수) ▲우경제(성형외과학교실주임교수) ▲한수정(재활의학교실주임교수) ▲이상화(가정의학교실주임교수) ▲최윤희(응급의학교실주임교수)

의과대학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2020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선정

의과대학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의학과 이지희 교수)가 2020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기초의과학분야(MRC)에 최종 선정됐다.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을 향상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학분야(SRC) △공학분야(ERC) △기초의과학분야(MRC) △융합분야(CRC) △지역혁신분야(RLRC) 5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6월 29일(월) 발표 결과 올해는 총 76개 연구소가 신청했으며 성장 가능성, 공동연구 수행계획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해 18개 연구집단이 신규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됐다. 이지희 교수는 2010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기초의학분야사업에 선정되어 9년간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MRC)를 이끌며 혁신적 조직손상 개선 기술 개발 연구를 선도해왔으며, 이번에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가 사업에 재선정되는 등 탁월한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치과학교실 김진우 교수,
치의학 분야 최초 한림원 차세대 회원 선출

탁월한 학문적 성과 낸 만 43세 이하 연구자 중 선정
올해 선정 회원 34인 중 유일한 임상 의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김진우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이 선발하는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Y-KAST) 차세대 회원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이번에 선출된 34인 중 유일한 임상 의사이며 역대 선발된 Y-KAST 회원 중 최초의 치과 전문의다. Y-KAST 회원은 만 43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 중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를 선발하며, 특히 박사학위 후 국내에서 독립적 연구자로서 이룬 성과를 중점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과학기술리더를 최종 선출한다. 국외 우수 과학자와의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장차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그룹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한림원은 "김 교수는 연구의 길을 개척한 젊은 치의학자로서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을 비롯한 여러 연구를 수행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악골괴사증을 진단하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규명 연구, 3D 프린팅 골재건 기술, 딥러닝 기술과 치의학의 융합 연구 등으로 골대사 및 치의학 분야 최고 저널에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부터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근무 중이다. 대한치과외과학회 신인학술상,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신진연구자상 등을 수상했고 최근 확장현실(X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연구의 총괄 연구책임자로 '2020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5년간 5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교수팀 연구 논문 바이오센서 분야
세계적 학술지 게재

AI 모션현미경 이용해 암세포 흘러갈 때 세포흔적 발견...
새로운 암진단법으로 주목받아



의과대학 김민석 교수 연구팀은 미세진동을 이용한 AI 기반 기술을 통해 암세포를 탐지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혈액 내 암세포가 흘러갈 때 생기는 흔적을 관찰함으로써 암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혁신적 의학 기술이 생긴 것이다. 김 교수 연구

팀은 최근 바이오센서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바이오센서와 바이오전자(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저널(2019년 JCR Chemistry, Analytical 분야 1위)을 통해 '모션현미경을 이용해 유방암 세포가 흘러가며 흔적을 남기는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암세포를 탐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는 김 교수의 제자이자 본교 의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혜윤 학생이 제1저자로, 의학과 김민석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의과대학 기금 안내 및 약정현황 명단

1. 의과대학 발전기금 (2020.07.01. ~ 2020.12.31. 기준 약정일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관련 사업,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김정자 (의학 70졸)	5,000,000원	은효원 (의학 95졸)	3,000,000원
재단법인 임당장학문화재단	30,000,000원	이세환 (의학 70졸)	11,807,698원
천만장학회	100,000,000원	이은일 (의학 70졸)	23,615,395원
김홍숙 (의학 70졸)	11,227,574원	이학순 (의학 70졸)	11,227,574원

2. 백분의일의나눔장학금 (2020.07.01. ~ 2020.12.31. 기준 약정일순)

의과대학 동창들이 각자 수입의 백분의 일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취지로 모금한 장학금입니다. 의과대학동창회에서는 매해 연말, 200여 명의 회원들이 다달이 후원한 장학금 약 1억 3000만원을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규희(의학90졸), 박미향(의학90졸), 김병선(의학84졸), 강예성(의학93졸), 고은희(의학78졸), 권계숙(의학90졸), 권정미(의학99졸), 김지영(의학89졸), 김경효(의학83졸), 김광주(의학84졸), 김금미(의학89졸), 김문정(의학95졸), 김민석(의학과교수), 김보경(의학92졸), 김성희(의학87졸), 김수경(의학93졸), 김연신(의학82졸), 김영선(의학94졸), 김영주(의학84졸), 김예미(의학과교수), 김예진(의학93졸), 김우선(의학90졸), 김윤희(의학78졸), 김자영(의학84졸), 김정숙(의학83졸), 김종원(의학79졸), 김지영(의학89졸), 김지호(의학89졸), 김진희(의학61졸), 김태경(의학84졸), 김태연(의학05졸), 김태임(의학74졸), 김한울(의학08졸), 김현영(의학78졸), 김현화(의학81졸), 김혜승(의학78졸), 김혜옥(의학84졸), 김홍희(의학88졸), 김효신(의학84졸), 남은미(의학93졸), 맹신숙(의학92졸), 문경원(의학02졸), 김태임(의학74졸), 문용자(의학61졸), 문인숙(의학78졸), 민정혜(의학93졸), 박경숙(의학86졸), 박경화(의학84졸), 박미연(의학89졸), 박보영(의학05졸), 박선옥(의학74졸), 박성희(의학82졸), 박승희(의학89졸), 박연희(의학93졸), 박원아(의학90졸), 박은미(의학93졸), 박은애(의학88졸), 박재욱(의학75졸), 박정선(의학78졸), 박준범(의학과교수), 박혜숙(의학91졸), 박혜영(의학82졸), 박혜영(의학85졸), 방문혜(의학84졸), 배기선(의학99졸), 배순희(의학75졸), 배현아(의학00졸), 백세연(의학93졸), 백승연(의학82졸), 백승희(의학82졸), 백혜승(의학89졸), 백희정(의학83졸), 서동혜(의학95졸), 서란(의학82졸), 서시정(의전원13졸), 서정완(의학82졸), 서정은(의학09졸), 서한나(의학10졸), 성시열(의학81졸), 손현주(의학84졸), 손희정(의학89졸), 송선희(의학77졸), 송현주(의학00졸), 신수아(의학93졸), 신정아(의학07졸), 신혜원(의학78졸), 신화자(의학78졸), 심소연(의학99졸), 심현(의학80졸), 안영호(의학과교수), 안혜선(의학84졸), 양나래(의학07졸), 양미혜(의학82졸), 오양자(의학65졸), 오혜숙(의학78졸), 오명숙(의학71졸), 우복희(의학63졸), 우소연(의학96졸), 우재희(의학07졸), 원혜성(의학90졸), 유경아(의학97졸), 유경혜(의학84졸), 유금혜(의학00졸), 유남수(의학77졸), 유동원(의학84졸), 유박영(의학74졸), 유시현(의학95졸), 유신애(의학69졸), 유채섭(의학84졸), 윤명인(의학78졸), 윤석애(의학71졸), 윤석완(의학76졸), 윤소윤(의학07졸), 윤수진(의학90졸), 윤혜원(의학80졸), 이경숙(의학82졸), 이국희(의학89졸), 이귀웅(의학78졸), 이남경(의학89졸), 이남희(의학79졸), 이령아(의학92졸),

이명희(의학90졸), 이미애(의학82졸), 이순남(의학78졸), 이순재(의학75졸), 이승희(의학84졸), 이연주(의학90졸), 이영은(의학90졸), 이예경(의학82졸), 이용주(의학77졸), 이윤하(의학91졸), 이은엽(의학75졸), 이재욱(의학79졸), 이재욱(의학76졸), 이재현(의학80졸), 이정엽(의학82졸), 이정원(의학98졸), 이종민(의학80졸), 이지희(의학84졸), 이지희(의학90졸), 이진숙(의학78졸), 이향운(의학93졸), 이현경(의학96졸), 이현주(의학석사07졸), 이해영(의학77졸), 이훈주(의학07졸), 임석아(의학91졸), 임선영(의학82졸), 임원정(의학89졸), 장은경(의학90졸), 장혜숙(의학75졸), 전영미(의학82졸), 전해진(의학05졸), 전희경(의학89졸), 정미경(의학84졸), 정민경(의학10졸), 정성애(의학91졸), 정성철(의학과교수), 정수경(의학97졸), 정연정(의학90졸), 정윤희(의학74졸), 정은숙(의학84졸), 정은주(의학90졸), 정인숙(의학77졸), 정주혜(의학97졸), 정지아(의학93졸), 정혜선(의학05졸), 정호인(의학90졸), 조기영(의학02졸), 조수진(의학97졸), 조영주(의학84졸), 조은아(의학85졸), 조혜경(의학04졸), 주문희(의학70졸), 주미련(의학74졸), 주재본(의학77졸), 차순재(의학60졸), 채설아(의학96졸), 최옥경(의학90졸), 최원주(의학79졸), 최윤희(의학99졸), 최은경(의학89졸), 최의숙(의학77졸), 최지하(의학01졸), 최현주(의학87졸), 최혜영(의학85졸), 표영희(의학74졸), 피상순(의학84졸), 하은희(의학87졸), 한경원(의학84졸), 한기정(의학89졸), 한승혜(의학96졸), 한지윤(의학75졸), 한혜기(의학78졸), 허금희(의학89졸), 허양임(의학05졸), 허정원(의학92졸), 홍기숙(의학80졸), 황은미(의학01졸)

3. 기타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2020.07.01. ~ 2020.12.31. 기준 약정일순)

기금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발전기금	의예과학생복지기금	신길자 (의학78졸)	500,000원
발전기금	의학교육혁신기금	권복규 (의학과교수)	1,000,000원
발전기금	의예과학생복지기금	박영미 (의학96졸)	500,000원
발전기금	치과학교실발전기금	전윤식 (의학과명예교수)	30,000,000원
발전기금	의예과학생복지기금	최윤희 (의학99졸)	1,000,000원
발전기금	의학교육혁신기금	최희정 (의학91졸)	15,000,000원
장학기금	연희장학금	주문희 (의학70졸)	12,000,000원
장학기금	강영빈장학금	윤영희 (의학70졸)	11,473,255원
장학기금	연구활동장려장학금	윤주천 (의학과교수)	4,600,000원
장학기금	조성래장학금	조성래	3,000,000원
장학기금	의과대학동창회(조종남)장학금	조종남 (의학75졸)	10,000,000원
장학기금	의과대학동창회(피상순)장학금	피상순 (의학84졸)	5,000,000원
장학기금	의과대학동창회(한영자)장학금	한영자 (의학62졸)	3,000,000원

의과대학 발전기금 안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사업,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공통 예우

- 후원 감사카드, 모바일 생일축하카드 발송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도너스월(디지털월)에 이름남김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총 약정액 3백만원 미만의 경우 1년간, 3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경우 3년간 제공합니다.)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박물관 기념품샵(10%), E-feel(5%), 도예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케세이호(10%), 닥터로빈(5%), 교보문고(5%), Soho&Noho(15%), 구내안경점(10~20%), 뚜레쥬르(10%), 까페 블루팻(5%)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77-6827,2928,2927 **Fax** [02]392-3473 **E-mail** ewha21@ewha.ac.kr

의과대학 행정실 **Tel** [02]6986-6006 **Fax** [02]6986-7000 **E-mail** mediewha@ewha.ac.kr

※ 후원자는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우소연(기획·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임재향(기획·정보관리부 차장), 정최경희(기획·정보관리부 차장), 박유경(의과대학 행정실)

학생기자단 박수현(의학과 3학년), 권나현(의학과 1학년), 임나은(의학과 1학년), 정상현(의학과 1학년)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식지를 우편 또는 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Tell:** 02.6986.6007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의학관(마곡), Esther Building



의학관(마곡) 1층 로비



의학도서관